

간호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최 숙 희

영산대학교 간호학과

Factors Influencing Sexual Assertiveness of Women University Students in Nursing

Choi, Sook Hee

Department of Nursing, Youngsan University, Yangsa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level of sexual assertiveness in women students in nursing and also, to investigate factors that influence sexual assertiveness. **Methods:** In this study, 373 women students in nursing who were enrolled in a university in B city, Korea and who gave written consent completed the questionnaire between May 15 and May 30, 2016.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 level of sexual assertiveness in the women students in nursing was 54.84 ± 5.82 . Sexual assertiveness showed negative correlations with gender role stereotypes ($r = -.37, p < .001$), and permissiveness of dating violence ($r = -.15, p < .005$), an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esteem ($r = .36, p < .001$). Models including the variables explained 18% of the variance for sexual assertiveness. Gender role stereotypes and self-esteem were the influential factors. **Conclusion:** Based on the outcome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sign intervention programs that emphasize sexual assertiveness of women students in nursing.

Key Words: Sexual, Assertiveness, Self-esteem, Gender role, Dating violence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성인초기에 해당되고 대학시절은 생애 중 가장 다양하고 의미있는 관계형성의 시기로 자아정체성의 확립을 이루는 시기이다[1]. 또한 대학생은 인생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인격을 형성해야 하는 시기로 성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가치관을 가지는 시기이기도 중요하다[2].

대학생은 신체적으로는 성장이 완료된 시기이지만, 성적충

동을 적절히 수행하고 판단할 성에 관한 가치체계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로 주체적인 판단이나 선택에 기초한 성행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3]. 이로 인하여 대학생은 70% 정도가 이성교제와 얽힌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중 성 관련 문제에 대하여 대부분의 학생이 고민한 경험이 있다[4]. 친밀함을 전제로 하는 데이트 상황에서 상호간의 성적관심이나 성행동의 요구수준의 차이로 성적갈등이 일어나고, 성적 갈등에 대한 해결기술이 부족하여 원하지 않는 성관계의 허용과 함께 상대방의 동의없이 억압과 강요에 의해 데이트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5].

주요어: 성, 자기주장, 자아존중감, 성역할, 데이트 폭력

Corresponding author: Choi, Sook Hee

Department of Nursing, Youngsan University, 288 Junam-ro, Yangsan 50510, Korea.
Tel: +82-55-380-9442, Fax: +82-55-380-9305, E-mail: mind4560@ysu.ac.kr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Youngsan University research fund(2016).

Received: Aug 4, 2016 | Revised: Oct 6, 2016 | Accepted: Dec 1, 2016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많은 여대생은 충분한 지적능력을 가지고도 이성교제 중 경험하는 갈등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부정적인 갈등행동의 결과로 불쾌한 정서, 친밀감 상실, 대화의 단절, 원하지 않는 이별을 가져올 수 있다[6]. 성과 관련된 문제들은 여성들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성적인 권리를 이해하는 것은 위협요인을 감소시키는데 있어 중요하며, 성적인 권리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높일 필요가 있다[7].

성적 자기주장은 성적인 상황에서 자기감정의 균형, 자신의 이득, 자신의 자부심, 사회적으로 떳떳함 등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8] 성적 자기주장이 높으면 이성교제 중 원치 않는 성행위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이성교제 시에 여성 자신이 성적인 존재로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9]. 또한 성적 자기주장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접촉 상황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그 상황을 피해가는 능력으로 성교경험이 있는 집단이 성교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하여 성적 자기주장 정도가 낮았다[10].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별, 전공, 성역할 고정관념, 전통적 성태도, 자기주장이 성적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10].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성역할 고정관념은 전통적인 여성성과 남성성을 내면화한 정도로, 이성교제에서 남녀가 만나는 성적 상황에서 전통적인 성역할을 따르도록 사회적 압력을 느껴 안전을 위한 자기주장을 어렵게 하고[11], 대학생의 데이트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연구에서 전통적인 성역할이 성적 자기주장을 약화시켜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난[12] 중요한 개념이다.

데이트 폭력 허용도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에서의 폭력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트 폭력 행위가 어느 정도 허용되는가를 말한다[13]. 폭력허용도는 폭력에 더 허용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신체적 및 성적 폭력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14], 성폭력 허용도는 성적 자기주장과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나[2] 성적 자기주장은 데이트 폭력 허용도를 낮게 하여 데이트 성폭력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요인이다.

성적 자기주장과 관련된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존중해주는 자신에 대한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반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새로운 경험에 대해 수용적이며 자기 자신에 대해 가치있게 느끼게 하기 때문에 자신의 결정능력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도와준다[15].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성적 자기주장에 있어서도 일치적 의사

소통으로 의사표현이 분명하고 자신의 자율성을 유지한다고 하였다[9].

최근 데이트 폭력과 관련하여 성과 관련된 문제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여성들이 자신의 성적 자기주장을 갖는 것은 원치 않거나 안전하지 않은 성적행동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16]. 성적 자기주장과 관련된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선행연구가 일부 이루어졌으나[2,17-20] 간호여대생을 대상으로 성적 자기주장에 대한 관련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관점이 전통적 여성성에서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문직 간호사로서 정체성 확립[21]과 함께 간호현장에서 성적 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가장 일선에서 간호해야 할 간호여대생은 원하지 않는 성행동의 거부, 성폭력 예방, 임신 및 질병예방을 위해 성적 자기주장에 대한 이해와 대상자 교육을 위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인관계 상호작용의 요인인 자아존중감[8],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역할변화로 형성된 여성성이나 남성성을 반영하는 요인인 성역할 고정관념[12], 이성간의 교제에서 폭력을 예측할 수 있는 데이트 폭력 허용[2]을 성적 자기주장에 관련된 요인으로 확인하는 것은 개인적, 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여대생을 대상으로 성적 자기주장, 성역할 고정관념, 자아존중감, 데이트 폭력 허용의 정도를 알아보고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중재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성적 자기주장, 성역할 고정관념, 자아존중감, 데이트 폭력 허용의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적 자기주장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성역할 고정관념, 자아존중감, 데이트 폭력 허용도, 성적 자기주장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여대생을 대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 자아존중감, 데이트 폭력 허용도, 성적 자기주장의 상관관계와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의 표본수를 산출한 결과,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0, 예측요인 9개일 때 대상자수는 245명이었다. 이를 근거로 설문지의 응답률과 탈락률을 고려하여 대상자수는 총 400명을 배부하였고, 회수된 설문지는 380부였으며, 이중 내용이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한 373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3. 연구도구

1)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고정관념 척도는 Oh, Kang과 Kim [20]이 개발한 도구를 저자의 사용에 대한 동의 후 사용하였다, 총 22개 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Oh, Kang과 Kim [2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7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7이었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척도는 Rogenberg [22]가 개발하고, Jon [23]이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자아가치와 자아승인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기보고식 척도로 긍정 5문항, 부정 5문항, 전체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1점 '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부정 문항은 역점수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Jon [2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3) 데이트 폭력 허용도

대상자의 데이트 폭력 허용 척도는 Foo와 Margolin [24]의

폭력정당화 척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한 9문항과 20, 30대 30쌍 연인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6문항을 추가하여 구성한 Ha와 Seo [25]의 도구를 저자의 사용에 대한 동의 후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4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 허용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Ha와 Seo [25]의 Cronbach's α 는 .95이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2였다.

4) 성적 자기주장

대상자의 성적 자기주장 척도(Sexual Assertiveness Scale)는 Morokoff 등[26]에 의해 개발되고 표준화된 것으로 원하는 성적 접촉을 주장하는 것,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거절하는 것, 일정한 파트너와의 성교에서 임신, 성병 예방의 세 차원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Choi [9]가 번안하고 수정한 도구로 한국의 사회 문화적 환경을 고려하여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거절하는 요인 6문항과 임신, 성병 예방 요인 6문항을 포함하여 12문항으로 구성된 것을 사용하였다. 거절요인에는 거절(3문항), 거절 못함(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신과 성병 예방 요인에는 성교시 콘돔 사용하는 문항(3문항)과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문항(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신체 접촉 정도에 따라 답변이 다를 수 있어서 실제로 경험하지 않더라도 답할 수 있도록 과거형과 미래형 동사를 동시에 사용하였다. 5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최저 12점에서 최고 60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자기주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Patricia 등[26]의 개발 당시 거절요인 신뢰도 Cronbach's α 는 .74, 임신과 성병 예방요인 Cronbach's α 는 .82로 나타났고, Choi [9]의 연구에서 거절요인 신뢰도 Cronbach's α 는 .72, 임신과 성병 예방요인 Cronbach's α 는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거절요인 신뢰도 Cronbach's α 는 .87, 임신과 성병 예방요인 Cronbach's α 는 .88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Y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YSU IRB-201602-HR-008-02)을 받아, 2016년 5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자는 Y, B시에 소재한 3개 대학의 간호학과 학과장의 동의를 얻어 간호여대생을 대상으로 직접 연구목적과 절차를 설명한 후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발적으로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은 다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는 자료수집 시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연구대상자에게 설명하였다. 자료수집의 설문 응답 시간은 평균 15~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자료수집이 끝난 후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사례를 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성역할 고정관념, 자아존중감, 데이트 폭력 허용도, 성적 자기주장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적 자기주장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 분석은 Scheffé test를 사용하였다.
- 대상자의 성역할 고정관념, 자아존중감, 데이트 폭력 허용도, 성적 자기주장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구하였다.
- 대상자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관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변수들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은 '20~22세'가 237명(63.5%), '20세 미만'이 86명(23.1%) 순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형태는 '자택'이 235명(63.0%)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 여부는 '무교'가 242명(64.9%)으로 많았고, 학과 성적은 '중'이 285명(76.4%), 경제적 상태도 '중'이 310명(83.1%)으로 가장 많았다. 용돈은 '30~39만원'이 139명(37.3%)로 가장 많았고, 이성교제 경험은 '없다'가 244명(65.4%), '있다'가 129명(34.6%)으로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성역할 고정관념, 자아존중감, 데이트 폭력 허용도, 성적 자기주장의 정도

대상자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2.08 ± 0.60 점, 자아존중감은 3.49 ± 0.66 점, 데이트 폭력 허용도는 2.33 ± 0.58 점, 성적 자기주장은 54.84 ± 5.82 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37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 (year)	< 20	86 (23.1)
	20~22	237 (63.5)
	23~25	32 (8.6)
	≥ 26	18 (4.8)
Residential type	Home	235 (63.0)
	A boarding house	90 (24.1)
	Board oneself	48 (12.9)
Religion	Have not	242 (64.9)
	Have	131 (35.1)
Academic grade	High	29 (7.8)
	Middle	285 (76.4)
	Low	59 (15.8)
Economic state	High	18 (4.8)
	Middle	310 (83.1)
	Low	45 (12.1)
Pocket money (10,000 won)	< 10	17 (4.5)
	10~19	41 (11.0)
	20~29	97 (26.0)
	30~39	139 (37.3)
	≥ 40	79 (21.2)
Hetero sexual relationship	Yes	129 (34.6)
	No	244 (65.4)

Table 2. Level of Gender Role Stereotypes, Permissiveness of Dating Violence, Self-esteem and Sexual Assertiveness (N=373)

Variables	Obtained range		
	Min	Max	M±SD
Gender role stereotypes	1.00	3.60	2.08±0.60
Self-esteem	2.00	5.00	3.49±0.66
Permissiveness of dating violence	1.00	3.67	2.33±0.58
Sexual assertiveness	32.00	60.00	54.84±5.8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적 자기주장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적 자기주장의 차이에서 연령($F=4.26$, $p=.006$), 학과 성적($F=5.60$, $p=.004$)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외 변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사후 검정에서 '20세 미만'이 '23~25세'보다 성적 자기주장이 높았다. 학과 성적은 사후 검정에서 '하'는 '상'과 '중'보다 낮았다(Table 3).

4. 대상자의 성역할 고정관념, 자아존중감, 데이트 폭력 허용도, 성적 자기주장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성역할 고정관념, 자아존중감, 데이트 폭력 허용도, 성적 자기주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적 자기주장은 성역할 고정관념($r = -.37, p < .001$), 데이트 폭력 허용도($r = -.15, p < .005$)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자아존중감($r = .36, p < .0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5. 대상자의 성적 자기주장의 영향요인

대상자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된 성역할 고정관념, 자아존중감, 데이트 폭력 허용도를 설명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확인한 결과 잔차의 분포는 정규성을 만족하였고, 독립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을 검정하였을 때, 공차한계(tolerance)가 .667~.978이고,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02~1.49로 나

Table 3. Difference of Sexual Assertive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7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exual assertiveness	t or F	p (Scheffé')
			M±SD		
Age (year)	< 20 ^a	86 (23.1)	55.79±5.37	4.26	.006 (a > c)
	20~22 ^b	237 (63.5)	55.04±5.59		
	23~25 ^c	32 (8.6)	52.38±7.04		
	≥ 26 ^d	18 (4.8)	52.06±6.83		
Residential type	Home	235 (63.0)	54.94±5.78	1.50	.215
	A boarding house	90 (24.1)	55.42±5.74		
	Board oneself	48 (12.9)	53.22±6.09		
Religion	Have not	242 (64.9)	55.44±5.41	2.16	.142
	Have	131 (35.1)	54.52±6.01		
Academic state	High ^a	29 (7.8)	55.14±5.53	5.60	.004 (a > c, b > c)
	Middle ^b	285 (76.4)	55.21±5.46		
	Low ^c	59 (15.8)	51.41±8.00		
Economic status	High	18 (4.8)	53.00±8.46	1.01	.364
	Middle	310 (83.1)	54.98±5.57		
	Low	45 (12.1)	54.64±6.22		
Pocket money (10,000 won)	< 10	17 (4.5)	54.47±5.43	1.55	.189
	10~19	41 (11.0)	56.39±4.65		
	20~29	97 (26.0)	55.34±5.18		
	30~39	139 (37.3)	54.67±5.95		
	≥ 40	79 (21.2)	53.82±6.77		
Hetero sexual relationship	Yes	129 (34.6)	54.13±6.09	0.75	.467
	No	244 (65.4)	55.22±5.64		

Table 4. Correlation between Gender Role Stereotypes, Permissiveness of Dating Violence, Self-esteem and Sexual Assertiveness (N=373)

Variables	Gender role stereotypes	Permissiveness of dating violence	Self-esteem	Sexual assertiveness
	r (p)	r (p)	r (p)	r (p)
Gender role stereotypes	1			
Permissiveness of dating violence	.142 (.006)	1		
Self-esteem	-.442 (< .001)	-.116 (.025)	1	
Sexual assertiveness	-.372 (< .001)	-.146 (.005)	.355 (< .001)	1

Table 5. Influencing Factor Sexual Assertiveness

(N=373)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62.34	2.13		28.30	<.001
Gender role stereotypes	-4.91	1.38	-.21	-4.15	<.001
Self-esteem	-2.34	3.02	-.24	-3.62	<.001
Permissiveness of dating violence	0.80	0.42	.09	1.90	.058
Adj. R ² =.18, F=26.334, p<.001					

타나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F=26.334, p<.001$), 회귀식에 대한 Adj. R²이 .18로 18%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대상자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역할 고정관념($t=-4.15, p<.001$), 자아존중감($t=-3.62, p<.001$)으로 나타났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간호여대생을 대상으로 성적 자기주장의 정도를 알아보고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3.49 ± 0.66 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Kim과 Park [18]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3.18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21]에서 자아존중감은 학년별 차이를 나타냈고, 자신의 성정체성이 확립되면서 자신에 대한 가치평가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여대생의 자아존중감은 성적 자기주장과 관련된 반복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고, 간호여대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통해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정체성 함양과 함께 바람직한 역할 수행을 위한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2.08 ± 0.60 점으로 Lee와 Kang [2]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2.2점 보다는 낮아 성역할에 대해 양성평등 의식이 더 높은 것을 의미하고, 데이트 폭력 허용도는 2.33 ± 0.58 점으로 Shim, Lee와 Oh [27]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2.0점보다 높아 데이트 폭력에 있어서는 더 허용적임을 의미한다. 간호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은 54.84 ± 5.82 점으로 나타나 Kim과 Park [18]의 연구에서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이 52.12 ± 5.66 점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여대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고 같은 도구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비교하기에 한계가 있으나, 연구마다 점수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로 보건계열 학생들이 전공 특성상 생물학적 성에 대한 지식이 있고 임신, 성병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타 계열 학생

들보다 높은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18]. 이를 통하여 더 많은 지역을 포함한 간호여대생을 대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 데이트 폭력 허용도, 성적 자기주장 연구, 지역별 비교연구 및 타 학과와의 비교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성적 자기주장의 결과에 따라 간호여대생 및 여대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및 성 접촉 시 자신을 보호하고 성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성역할 고정관념의 변화, 데이트 폭력 허용도에 대한 인식, 성적 자기주장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전통적인 성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성적 자기주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교육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하고[27], 데이트 폭력 허용도는 사회의 폭력 수용도에 영향을 받아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환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적 자기주장의 차이에서 연령, 학과 성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Cho와 Kim [17]의 연구와 유사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Moon과 Kang [8]의 연구에서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성적은 선행연구결과가 없어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경제적 상태, 용돈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경험에서 용돈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와 상이하였다[18]. 대학생의 경제적 상태와 용돈이 많을수록 성태도에 개방적이고, 성태도 점수가 높고 개방적일수록 성적 자기주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18]를 통해 경제적 능력은 성적 자기주장이나 피임 등의 적극적인 대처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볼 수 있어, 반복 연구를 통한 비교와 연령, 학년, 성적 등의 관련 요인의 확인이 필요하다.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역할 고정관념과 자아존중감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에서도 성역할 고정관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이 나

타난 결과[14]와 유사하다. 또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을수록 성적 자기주장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통적 성역할을 수용하는 사람은 성적 자기주장이 낮아,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 시에 거절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20~64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은 나이가 어릴수록, 미혼일수록,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 여성일수록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28] 기성세대와 다른 교육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통해 양성평등의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생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억제하던 입시 위주의 고등학교에서 벗어나면서 자유와 재량의 범위가 커지고 성적 활동이 어느 시기보다 활발해지면서 부주의하고 무분별한 성 문화에 노출됨으로[29] 일어나는 성문제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는 자기 정체성이 형성되는 중학교 시기부터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양성평등의식의 정립을 통한 성적 자기주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성적 자기주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지식의 강화만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자기주장 능력 및 의사소통 기술을 포함시킨 성적 자기주장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여학생 스스로 자기 몸을 돌보고 대처하고자 하는 실천적인 의지가 반영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8].

성적 자기주장에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것은 여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자아존중감이 가장 관련이 높은 변수로 13%의 설명력을 나타낸 결과[18]와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자아존중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결과[8]와 유사하다. 청소년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성적 자기주장이 낮아 원치 않는 성접촉과 이성교제간의 성 접촉 경험에 노출된다는 결과[30]가 이를 잘 설명해 준다. 사회적 행동과 역할을 나타내는 자아존중감의 향상은 성적 자기주장의 향상을 가져옴으로 이성교제에서의 성적권리의 이해, 원치 않는 성행위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여성 자신이 주체적인 행동[8]을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간호여대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이 성적 자기주장의 관련 요인인 것을 확인하는 반복연구와 실제적인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데이트 폭력 허용도는 성적 자기주장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성적 자기주장과 성폭력 허용도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2]와 유사하다. 그러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는 않아 도구의 차이에 따른 것인지, 연구대상자의 차이에 따른 것인지는 반복 연구를 통한 결과의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성적 자기주장이 낮아 데이트 폭력에 더 허용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신체적 및 성적 폭력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13]와 폭

력 허용도가 높을수록 데이트 성폭력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27]를 통해 무엇보다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간호여대생을 대상으로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적 자기주장을 높일 수 있는 중재방안이 필요하다.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역할 고정관념과 자아존중감이 나타났으나 설명력은 18%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데이트 폭력 허용도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은 결과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성역할 고정관념, 자아존중감, 데이트 폭력 허용도, 성적 자기주장에 대한 반복연구를 통하여 예측요인의 확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일 지역의 간호학과를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고, 같은 변수의 선행연구와의 비교가 제한적이어서 확대 해석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여대생을 대상으로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다.

결론

본 연구는 간호여대생을 대상으로 성적 자기주장의 정도를 알아보고,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간호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과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한 간호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의 향상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성문화 및 성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REFERENCES

1. Lee YR, Kim KM, Choi SE. Awareness levels and influencing factors of sexual harassment and gender egalitarianism among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2013;24(1):40-50.
2. Lee ES, Kang HS. A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gender role stereotype, sexual assertiveness, sexual assault recognition,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and sexual violence experience in

- dating. *J East-West Nurs Res*. 2014;20(1):48-56.
<https://doi.org/10.14370/jewnr.2014.20.1.48>
3. Jeon GS, Lee HY, Rhee SJ.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of Korea college students and effects of sexual education on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Korean J Health Educ Promo*. 2004;21(1):45-68.
4. Yoo OS, Park K. An explanatory model of unwanted sexual compliance with dating partners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 Couns Psychother*. 2004;16(4):793-812.
5. Luthra R, Gidycz CA.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men and women: evaluation of theoretical model. *J Interpers Violence*. 2006;21(6):717-31.
6. Smith PH, White JW, Holland LJ. A longitudinal perspective on dating violence among adolescent and college-age women. *Am J Public Health*. 2003;93(7):1104-9.
7. Choi MS, Ha NS.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in sex and sexual autonom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4;10(4):318-30.
8. Kim YH, Moon ST, Kang HS. Factors influencing on sexual assertiveness of college students.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3;19(3):166-75.
9. Choi MH. Factors influencing sexual assertiveness among women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Yonsei University; 2005. 77 p.
10. Kim SJ, Moon ST, Kang HS. Factors influencing sexual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11;20(4):434-43.
11. Kiefer AK, Sanchez DT. Scripting sexual passivity: a gender role perspective. *Pers Relationship*. 2007;14:269-90.
12. Lee JY, Lee ES. The explanatory models of dating violence and victimization with dating partners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 Couns Psychother*. 2005;17:419-36.
13. Yoo SY. A study on the factor mediating the link between family violence victimization and dating violence victimization of college women: focusing on the acceptability of dating violence [master's thesis]. [Seoul]: Yonsei University; 2000. 84 p.
14. Jang HS, Cho HG. The prevalence and risk fa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n J Family Soc Work*. 2001;8:197-204.
15. Gang MH.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esteem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11;20(4):404-13.
16. East P, Adams J. Sexual assertiveness and adolescents' sexual rights. *Perspect Sex Repro H*. 2002; 34(4):212-6.
17. Cho GY, Kim YH. Factors influencing sexual assertiveness of women college students. *J Korean Data Anal Soc*. 2014;16(5): 2795-806. <https://doi.org/10.2307/3097732>
18. Kim BM, Park JS. Relationships among parent-child communication, self-esteem and sexual assertiveness for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gender difference.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5;21(1):11-22.
<https://doi.org/10.4069/kjwhn.2015.21.1.11>
19. Yee NH, Jung JS, Song HS. Influencing factors on female university students' sexual experience and sexual assertiveness. *J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 2016;17(3):414-22.
<https://doi.org/10.5762/KAIS.2016.17.3.414>
20. Oh SH, Kang HS, Kim YH. Analysis of rape myths acceptance and gender role stereotype among female and male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Public Health Nurs*. 2010;24(2):249-57.
21. Kim EJ, Kim GM, Choi KW, Kim SS, Lim JY. Gender identity, gender equality, and self 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Soc Home Care Nurs*. 2014;21(1):60-8.
22.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326 p.
23. Jon BJ.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University Journal*. 1974;11(1):107-30.
24. Foo L, Margolin G. A multivariate investigation of dating aggression. *J Fam Violence*. 1995;10(4):351-77.
25. Ha YJ, Seo MK. A study of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dating violence. *Soc Sci Res*. 2014;30(4):79-103.
26. Morokoff PJ, Quina K, Harlow LL, Whitmire L, Grimley DM, Gibson PR, et al. Sexual assertiveness scale for women: development and validation. *J Pers Soc Psychol*. 1997;73(4):790-804.
27. Shim CS, Lee YS, Oh SH.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role stereotypes, sexual assault awareness and permissible limit in the college students.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2;18(2):117-25.
<https://doi.org/10.4069/kjwhn.2012.18.2.117>
28. Kim SJ. Factors affecting gender-role stereotype. *Korean J Soc Welf Stud*. 2013;44(1):89-111.
29. Hong BS. A study on sexual subjectivity of adolescents. *Korean J Youth Stud*. 2002;9(3):79-117.
30. Lee SK.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sexual contacts and self-esteem, self -assertiveness of teenage girls who have or had boyfriends.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01;7(2):212-28.